

IMF위기와 천연가스 수급



이 동 인
한국가스공사 연구개발원
경제경영연구실장

1. 개관

지난해 12월 하순 IMF 경제구조조정 프로그램이 실시된 이후 천연가스 소비가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다. 발전용 천연가스 공급은 전년 대비 30% 이상 크게 감소하고 있고, 도시가스용 천연가스 소비도 영남 등 신규 천연가스 공급지역을 제외하고는 거의 정체 상태에 있거나, 지역별로는 감소하고 있다. 용도별로 보면 서비스업 종의 영업에 이용되는 상업용 판매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

한편 에너지의 수요가 감소하면서 에너지원의 상대가격변화에서 비롯된 연료간 대체도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최근의 에너지 수요 위축에도 불구하고 유

연탄 등 저가 에너지 수요는 늘고 있으며, 도시가스 중에서도 여타 에너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요금 상승이 적었던 산업용 수요는 비교적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점에서 IMF 위기 이후의 천연가스 소비 변화 추이를 살펴 보고, 향후의 전개방향과 대응을 생각해 보는 노력은 현 시점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하겠다.

다만 현재로서는 경제위기가 에너지 수급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향후의 구조적 변화가 어느 수준일지를 예측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다. 천연가스나 전력 등의 에너지 공급구조와 수용가의 소비패턴은 여건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경직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난 해 12

월 이후의 경제적 동요가 모두 현재의 수급구조에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전력과 가스등 공급자의 에너지 판매량은 계량과 검침 단계 이후 드러나기 때문에 최근까지의 수용가의 소비실적이 집계되지도 않은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동향으로도 대략적인 윤곽을 알아볼 수 있어서, 정부나 관련업계의 우선적인 대응에 필요한 정보는 얻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재까지의 실적을 중심으로 영향의 정도를 가늠해보고 계속 추이를 주시하는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2. 최근의 경제동향

도시가스를 비롯한 국내

표 1. 주요 경제변수 전년 동기비 증감률 추이 (단위 : %)

	97 평균	97. 11	97. 12	98. 1	98. 2
산업생산	6.9	4.3	3.0	-10.8	-1.9
중화학	11.2	7.8	6.2	-8.3	0.6
경공업	-5.8	-6.7	-7.6	-19.7	-10.4
도소매판매	3.2	1.0	-4.9	-8.7	-11.4

자료 : 통계청, <한국통계월보>, 각 호.

사실 우리나라 경기는 IMF로부터 긴급금융을 받기 시작한 12월 중순 이전인 지난해 하반기부터 나빠지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산업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많은 석유와 전력에 대한 수요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영향을 받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경기가 급격히 급냉하고, 생산활동과 민간 소비 심리가 위축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12월 이후이다.

지난 해 12월 이후 에너지 산업과 밀접한 경제동향을 보면, 생산과 소비활동은 계속해서 위축되고 있는데, 기업의 인원감축 등 구조조정 작업이 진행되어 당분간 경제활동이 활기를 찾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환율과 유가, 금리 등 에너지의 도입 및 판매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가격변수들은 빠르게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에너지 업계에서도 환율과 금리 급등에서 비롯된 1차적인 충격으로부터는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경제의 생산활동은 산업생산지수 기준으로 97년 11월 전년 동월비 4.3% 증가하였으나, 12월 3.0%, 1월 -10.8%, 2월 -1.9%로 크게 낮아지고 있다. 특히 경공업 부문의 생산활동은 지난해 12월 전년 동월 대비 7.6% 감소하였고, 금년 1월에는 19.7%, 2월에도 10.4%가 감소하였다. 다만 에너지를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중화학공업의 경우에는 생산활동 위축정도가 낮아서 금년 1월 전년 동월비 8.3% 감소에서 2월에는 0.6%의 증가를 기록하고 있다.

민간 소득 수준변화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소비지출 역시 지난해 12월 이후 급속히 감소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도소매 판매는 지난해 12월 전년 동월비로 4.9% 감소한데 이어 금년 1월 8.7% 감소하였고 2월에도 11.4%가 감소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국내 경기 위축으로 우리나라 국제수지는 크게 개선되고 있으며, 환율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또한 유가가 하락하고 있어서 에너지의 도입가격도 크게 낮아질 수 있게 되었다. 우리나라 무역수지 흑자는 2월에 33억 달러에서 3월에도 37억 달러로 월간 무역수지 흑자로는 매월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무역 수지 흑자 지속은 수출 증대보다는 주로 해외 원자재 수입이 급속히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우리나라 국제수지 흑자가 지속되고 3월중에는 단기채무의 장기채 전환 작업이 속속 진행됨에 따라 외환시장에서 원화 환율이 안정되고 있다. 원화의 대미 달러 환율은 지난해 12월 한 때 달러 당 2,000원 선에 육박하기도 하였으나, 외환시장 안정화 노력이 주효, 4월 2일 현재 달러 당 1,380 원에 거래

표 2. 환율 및 유가 추이

주 : 기말 기준

	97. 11	97. 12	98. 1	98. 2	98. 3
환율 (원/달러)	1027.53	1500.30	1746.80	1652.60	1378.80
Brent유가 (달러/배럴)	19.47	17.60	15.07	14.04	14.10

되고 있다.

국제 유가는 지난해 10월 배럴 당 20달러 수준에서 거래되었으나 이후 계속 떨어져 3월 말 현재는 배럴 당 15달러 내외로 떨어졌다. 유럽의 북해산 Brent유를 기준으로 보면, 지난해 10월 시장 평균 유가는 배럴 당 20.26달러에 거래되었으나, 3월 30일 현재 배럴 당 14.68달러로 지난해 10월 이후 28% 가량이 하락하였다. OPEC이 유가 하락을 진정시키기 위해 3월 3일 비엔나에서 긴급총회를 개최하고, 하루 124만 5천 배럴을 감산키로 합의했으나, 이는 현 공급과잉 상태를 해소하기에는 불충분한 규모로 보인다.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전망에 따르면, 국제 유가는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세계적인 동절기 기온 온난화와 아시아 지역 에너지 수요감소로 전체 석유수요가 크게 증대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난해 말부터 연초까지 급속히 상승한 국내 석유가 및 천연가스 가격은 추가로 더 상승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3. 에너지 수급추이

금년 1월 국내 에너지 소비는 지난해 1월에 비해 10.7%가 감소하였다. 지난해 12월까

	98. 1		98. 2	
		전년 동기비 증가율(%)		전년 동기비 증가율(%)
1차 에너지 (천 TOE)	14,829	-12.4	13,305	-6.9
석유 (천 배럴)	60,439	-22.3	54,341	-16.9
천연가스 (천 톤)	1,277	-7.4	1,049	-5.1
무연탄 (천 톤)	330	-5.2	260	-4.1
유연탄 (천 톤)	4,163	9.0	4,193	22.5
원자력 (GWH)	7,410	21.8	5,724	14.0
수력 (GWH)	387	1.8	377	23.6
기타 (천 TOE)	115	12.0	111	12.0

자료 : 산업자원부, 한국가스공사중앙지령실,
<생산 및 공급 통계 월보>, 각호.

표 3. 1차 에너지 소비 추이

지 계속 증가하던 에너지 소비가 감소세로 반전한 것이다. 1월의 에너지 소비 감소율은 월별 감소율로는 2차 석유파동이 발생한 82년 2월에 이어 사상 최고였다. 2월에 들어서는 총 에너지 소비가 1,331만 석유환산 톤으로 전년 동월비 6.9%가 감소하였다. 에너지 소비 감소율은 2월에 비해 낮아졌지만 2개월 연속 에너지 소비 감소가 계속된 것이다.

에너지 소비 감소세가 다소 둔화된 것은 전체적으로 국내 경제 활동이 일차적인 충격에서 벗어난 점을 반영한 것으로 여겨진다. 산업생산도 1월에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크게 위축되었으나 2월에는 위축 정

도가 다소 완화된 점도 이를 반영한다고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전체적인 에너지 소비 둔화 추이가 에너지 원별로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 말 이후의 환율 상승으로 에너지 원간 상대적 가격 변화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수급구조 전환이 진행되면서 에너지원별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석유류 소비는 상대적으로 급속히 감소되고 있는 반면,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유연탄 소비는 오히려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1차 에너지원별로 보면, 공업용 원료로 사용되는 납사를 제외한 연료유의 소비는 1월

전년 동월비 19.1% 감소한데 이어 2월에는 25.2%가 감소하여 전체 에너지 소비보다 빠르게 감소한 반면, 유연탄의 소비는 1월 9% 증가하였고 2월에도 22.5% 증가하여 전체 에너지 소비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

천연가스의 경우 발전용 천연가스의 소비가 크게 감소하여 전체 천연가스 소비는 감소하였다. 천연가스 소비는 1월 전년 동월비 7.4% 감소하였고, 2월에도 5.1% 감소하였다. 다만 납사의 소비는 석유화학산업의 호조로 1월 19.1% 증가한데 이어 2월 12.1% 증가하였다.

전체적으로 볼 때, 석유류의 소비가 크게 줄어들고 유연탄 등 값이 상대적으로 싸

너지원의 소비는 오히려 늘어나는 현상은 에너지 가격의 상대적인 변화 이후 에너지 수급 구조가 조정되는 것을 반영한 결과이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발전용 연료의 사용 패턴에서 두드러진다. 전력 생산을 위한 에너지의 소비는 가격체계의 변화 이후 천연가스 등 비싼 연료의 사용이 지양되고 석탄 등 값싼 연료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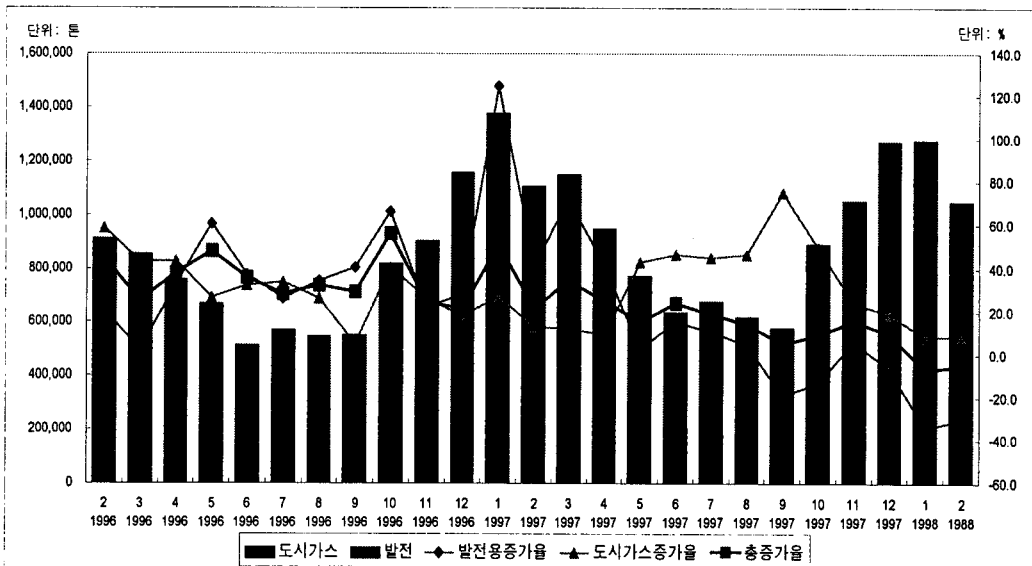
물론 전력생산 부문에서 일어나고 있는 연료의 대체는 산업용 전력 수요를 중심으로 한 전력 소비의 감소가 큰 요인이다. 전력의 수요가 줄어들면서 전력 생산 설비의 예비율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주로 첨두부하를 위해 사용되었던 천연가스 등 전력생산 단가가

높은 발전 에너지의 사용이 억제되고 있는 것이다.

전력의 소비는 2월 중 전년 동월비 1.7% 증가하였는데, 천연가스와 석유이용 발전은 전년 동월비로 각각 43.6%와 26.3% 감소한 반면, 원자력과 유연탄 발전은 14%와 51.5% 증가하였다.

3. 천연가스 수급동향

천연가스 소비가 발전용을 중심으로 감소하여 공급이 줄어들고 있다. 금년 2월 천연가스 수요는 도시가스용이 572만 톤이며 발전용 수요는 538만 톤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전년 동월에 비해 5.1%가 감소한 것으로 1월의 7.4% 감소 이후 2개월째 감소세를 나타내고



자료: 한국가스공사, 「가스산업동향」, 각 호 주: 증감률은 전년 동월비 증감률
그림 1 천연가스 수요 추이

있다. 천연가스 수요감소의 직접적인 요인은 전력 수요 감소에 따른 발전용 천연가스 수요 감소이다. 발전용 천연가스는 지난해 9월 이후 감소현상을 나타내기 시작하였으나, 최근에는 감소율이 30% 이상으로 두드러지고 있다.

발전용 천연가스는 1월 전년 동월비 34.2%가 감소한 데 이어 2월 30.1%가 감소하였다.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발전소별로는 평택, 인천 등 전력 생산만을 위한 발전소의 천연가스 사용량이 크게 줄고 있으나, 분당, 일산 등 지역 난방을 위해 전기와 열을 함께 생산하는 발전소의 천연가스 소비량은 비교적 적은 폭으로 줄어들고 있다.

한편 도시가스용 천연가스의 수요는 아직도 전체적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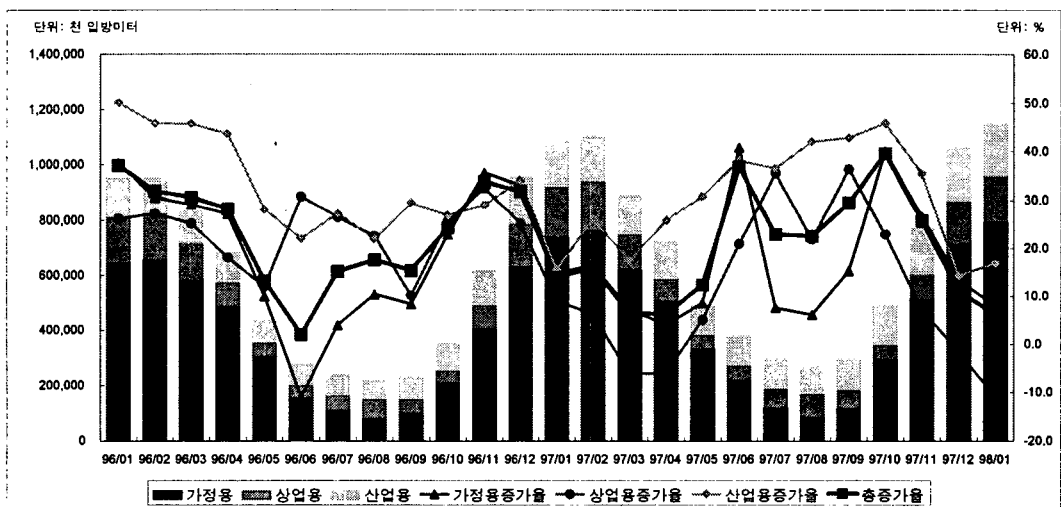
늘어나고 있다. 2월 도시가스용 천연가스 수요는 전년 동월비 8.4% 증가하였고, 1월에도 8.1%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도시가스용 천연가스 수요 증대가 전 지역에서 비슷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영남권의 천연가스 수요는 크게 늘고 있고 여타지역의 도시가스용 천연가스 수요는 전년과 비슷하거나 감소하고 있다.

영남권을 제외한 여타 지역의 도시가스용 천연가스 수요는 1월 전년 동월비 0.4% 증가하였고, 2월에는 1.5%가 감소하였다. 도시가스 사별로 수도권의 한진과 삼천리 도시가스는 금년 중 5-7%의 수요증가가 이루어지고 있고, 중부권의 충남도시가스사의 도시가스용 천연가스 수요도 전년대비

25% 가까이 늘고 있다. 한편 지난 1-2년 동안 도시가스연료를 천연가스로 대체하기 시작한 영남권은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100% 가까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호남권의 전북 도시가스사는 금년 실적이 전년 대비 7-8%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 도시가스 판매동향

금년 1월까지 집계된 도시가스 판매 동향을 살펴 보면, 전체적으로 상업용 도시가스의 소비는 크게 줄고 있으나, 가정용과 산업용 도시가스 수요는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27%가 증가한 도시가스 판매는 12월 11.1% 증가하였고, 1월에는 6.1% 증가하였다. 도시가스 중 천연가스의 사용량은 지난해 12월 18.3% 증가하



자료: 한국 도시가스 협회, 「도시가스 사업 통계 월보」, 각호 주: 증감률은 전년 동월비 증가율

그림 2. 도시가스 판매 추이

였고 금년 1월에는 증가율이 10.6%로 낮아졌다. 도시가스 판매의 급속한 증가 추세가 IMF 위기 이후 완만한 증가세로 변화한 것이다. 물론 최근에 도시가스 소비 증가율이 낮은 요인 중에는 지난 동절기의 기온이 평년에 비해 지역적으로 1-2도 따뜻하여 난방용 가스의 수요가 줄은 점도 있다. 그러나 90년 대 이후 기온의 변화에 관계없이 수용가의 평균 가스 소비량이 계속 증가하였던 점을 비추어 보면 최근의 소비 증가세 둔화는 경제위기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말할 수 있다.

도시가스 판매의 증감을 수용가 수의 증감과 수용가별 평균 소비량의 증감으로 구분하여 보면, 수요가 수는 여전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판매량의 증가는 이를 따르지 못하여 수용가당 평균 소비는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정용 등 수용가 당 평균 소비량은 90년 대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왔으나, 97년에는 소폭으로 하락하였다. 소득 수준의 향상과 함께 계속 증대되어 온 수용가의 도시가스 소비가 여건의 변화에 따라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도 있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것이다.

용도별로 보면, 가정용 도시가스 판매량은 97년 전체로 26% 가량 증가하였는데, 작년

12월 이후 증가율이 10% 대로 낮아졌다. 지난 해 12월 가정용 판매의 전년 동월비 증가율은 13.4%이었으며, 금년 1월의 판매량은 전년 동월비 8%에 지나지 않았다. 가정용 판매의 약 93%를 차지하는 도시가스용 천연가스의 판매도 지난해 12월 전년 동월비 18.3%에서 금년 1월에는 10.1%로 증가율이 낮아졌다. 가정용 수용가의 수를 보면 금년 1월까지 전년 동월비 14% 대의 증가율이 유지되고 있다. 수용가 수는 비교적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으나 전체 가정용 소비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가구 당 도시가스의 소비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앙 난방용 도시가스 소비에 있어서 세대 당 소비 수준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이는 개별 수용가의 에너지 절약이 에너지 서비스에 대한 지출 감소에 직접 연결되기 어려워 일종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현상이 두드러졌으나, 최근 가스 요금의 상승과 소득수준의 격감이 집단적인 에너지 절약 운동을 촉진하여 난방용 에너지 수요 감소를 촉진하였기 때문이다.

건물의 냉난방과 영업용 도시가스 판매는 경제 위기의 타격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부분이다. 상업용 도시가스 총 판매량은 지난해 전체로 전년 대비 24%가 증가하였으나, 금

년 1월에는 전년 동월비 증가율이 -10.9%로 수요감소가 일어나고 있고, 이 중 천연가스의 판매도 금년 1월 -11.2%로 비슷한 감소세를 나타내었다. 상업용 수용가의 수가 전체적으로 전년 동월비 20% 이상 늘어나고 있고,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권역에서는 이보다 빠른 25% 정도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평균적인 상업용 수용가 당 도시가스의 소비는 크게 격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산업용 도시가스 수요는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97년 전체로 29% 가량 증가하였던 산업용 수요는 지난해 12월 전년 동월비 12%, 금년 1월 20%로 여전히 빠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산업용 도시가스 중에서 천연가스의 수요는 지난해 12월 46%, 금년 1월 62%의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물론 IMF 경제 위기 이후 수요의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기는 하나 가정용과 상업용 소비에 비해 위축의 정도가 적거나 거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 산업용 수용가의 수도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전체적으로 20% 이상의 수용가 수 증가율이 금년 1월까지 지속되고 있으며, 천연가스권에서의 증가율은 이 보다 높은 35% 선을 유지하고 있다.

경제 위기 이후 산업체의

	천연가스	프로판 가스 (공장도가격)	경유(황 0.1%)		B-C유(황 1.0%)	
			98. 2. 3	98. 3. 3	98. 2. 3	98. 3. 3
세 후 소비자가격	323.87 (원/m ³)	542.60 (원/kg)	708.24 (원/l)	532.64 (원/l)	440.25 (원/l)	269.66 (원/l)
발열량(Kcal)	10,500	12,000	9,200	9,200	9,900	9,900
열효율(%)	85	85	80	80	80	80
유효열량(Kcal)	8,925	10,200	7,360	7,360	7,920	7,920
유효열량 천 Kcal 당 가격	36.29	53.20	96.23	72.37	55.59	34.05
천연가격 대비지수	100.00	146.59	265.18	199.43	153.18	93.83

자료: 한국가스공사, 「가스산업동향」, 1998. 3

주: 천연가스 및 프로판 가스 가격은 1월 말 이후 동일

표 4. 산업용 연료의 상대가격 비교

생산활동이 둔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용 도시가스의 소비는 크게 늘어나는 현상은 산업용 도시가스 요금이 상대적으로 싸졌기 때문이다. 산업체가 많은 영남권이 천연가스 공급권역에 포함되면서 LPG/Air보다 값이 싼 천연가스가 이들 지역에 공급되기 시작하였고, 지난 해 말과 금년 초 석유가격이 급등하면서 천연가스 요금이 중유, 경유 등 석유류에 비해 유리하게 조정되었기 때문이다. 가정용과 상업용의 가스소비는 소비 및 생산활동의 위축으로 영향을 받고 있으나, 산업용의 경우에는 경제위기 이후 에너지 원간 상대가격 변화로 오히려 좋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다.

도시가스로 공급되는 천연

가스의 가격은 정부의 승인을 거쳐 조정이 이루어지나, 석유류의 가격은 업체가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가격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환율 변동으로 석유류의 가격은 즉각적으로 상승하였으나 도시가스의 요금상승은 신속히 이루어지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상승폭도 제한을 받았다. 최근 환율이 폭락하여 석유류의 가격이 다시 낮아져 천연가스의 상대적인 저가 매력은 다소 사라지고 있으나, 여전히 천연가스는 과거에 비해 석유에 경쟁할 수 있는 연료로 부상되고 있다. 유효 열량 당 산업용 연료의 가격을 기준으로 천연가스와 석유류를 비교하면 3월 초 현재 경유는 천연가스에 비해 2배 가량 비싼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중유의 경우 2월 초까지도 천연가스에 비해 1.5배 비쌌으나 3월 초에는 천연가스에 비해 약 6% 가량 싼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천연가스의 요금 수준이 중유와도 경쟁할 수 있는 수준이 된 것을 알 수 있다.

5. 경제 위기 이후 수급변화의 시사점

IMF 경제위기가 천연가스 수급에 미치는 영향의 방향과 정도를 정리하여, 시사점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경제 위기가 생산활동과 소득 수준의 감소를 통해 에너지 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제 전반에 미친 1차적

인 충격에서는 벗어나고 있으나, 에너지 수급에 미치는 경제 위기의 영향이 이제 더 이상 없을 것으로 보기에 이르다. 특히 여름철 냉방 수요의 감소가 예상되고, 소비심리가 계속 위축되면 금년 동절기의 천연가스 소비도 현재와 같이 감소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에서 냉방수요의 증대는 지난 몇 년간 소득의 증대에 따라 이루어져 온 고급 에너지 수요이다. 금년 중 실질 소득은 감소하고 실업사태 등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면 고급 에너지 수요인 냉방 수요는 과거와 같이 크게 증대하기 어려울 것이 예상된다. 냉방수요의 감소는 크게 보아 전력수요의 감소로 나타날 것이다. 건물 등에서 가스 냉방이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하나 전체 냉방 에너지 수요에 비하면 그 비중이 작고 전력냉방이 대중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냉방용 전력 수요의 감소는 직접적으로 발전용 천연가스 수요의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여름철 냉방 수요용 전력은 전력 생산 입장에서 보면 침두부하에 해당되고, 냉방 전력 수요 감소는 침두부하의 감소로 나타나 침두부하용 발전 연료인 천연가스의 수요 감소를 야기하게 된다.

한편 경제위기에 따른 소비심리의 위축이 어느 정도 지속

될 것인가의 문제는 상업용 도시가스 판매의 회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소비심리가 위축되어 음식, 숙박 등 서비스 부문에 대한 소비지출이 감소하면 상업용 도시가스 판매는 쉽게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소득감소와 소비심리 위축이 지속되면 금년 동절기 난방 수요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97/98년의 동절기중에는 경제위기가 12월 하순부터 나타나서 동절기의 전기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위기 상황이 계속되어 소득수준이 감소하고 소비심리가 계속 위축된다면 금년 동절기 난방수요가 집중될 시기에 천연가스 소비 감소가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지속될 수 있다.

둘째로 경제위기 이후 에너지원간 상대가격 변화가 생각보다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다. 발전 부문에서는 상대가격 변화가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사용량이 많은 산업체의 에너지 수요도 석유와 천연가스의 상대가격 변화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반적으로 에너지수요는 가격이나 소득의 변화에 대해 비탄력적이라고 인식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의 추이를 보면 발전용과 산업용 등 대량 에너지 수용가의 경우 에너지원의 상대가격 변화는 수용가의 에너지 소비

구조 변화를 유도하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이는 대량 수용가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기업의 가격결정과정보다 정교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또한 에너지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에서도 에너지원간의 적정 상대가격 수준을 유지하여 전반적인 국가 에너지 자원 배분이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경주할 필요도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천연가스의 요금체제는 도소매로 이원화되어 있고, 도매요금은 중앙정부가, 소매요금은 지방정부가 승인하는 체제로 되어 있다. 한편 대량 수용가에서 천연가스와 대체관계에 있는 석유류의 가격은 업계가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체제이다. 따라서 환율의 변화나 유가의 변동은 석유류에 있어서는 비교적 신속히 조정될 수 있으나 천연가스의 요금은 상당한 시차를 가지고 조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량 수용가가 파악하는 에너지원간 상대가격이 일정 수준으로 안정적인 움직임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에너지원간 상대가격이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지 못하면, 에너지설비 투자나 설비의 운용에 필요한 의사결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의사결정이 지연되어, 합리적인 에너지사용을 유도하기

어렵게 된다. 산업체 에너지 사용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에너지원간 상대가격 수준이 안정화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천연가스 요금 결정이 보다 신중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6. 천연가스 업계와 정부의 대응

천연가스의 소비감소는 천연가스가 전량 해외에서 수입되기 때문에 우리 경제의 국제수지 개선에 도움이 된다. 또한 그 동안 우리나라는 여타 선진국에 비해 에너지 사용 효율이 낮은 것으로 지적되어 왔기 때문에, 민간 부문의 이러한 에너지 절약 움직임은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할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IMF 경제 위기 이후 천연가스 및 도시가스 부문의 소비감소는 석유, 전력 등 여타 에너지 부문에 비하면 크지 않기 때문에 문제의 정도가 심각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은 크게 위험할 수도 있다. 현재 도시가스 원료를 천연가스로 대체해 가는 작업이 영남과 호남의 남부 지방에서 계속되고 있고, 도시가스 사별로도 계속 지역 내 배관망을 확충해가며 도시가스의 보급을 확대해 가고 있

기 때문이다.

현재의 경제위기는 천연가스를 주 원료로 사용하는 도시가스가 전국적으로 또 지역적으로 계속 보급 권역을 확대해 가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 따라서 경제 위축에 따른 천연가스 소비규모의 감축은 투자재원 마련을 위한 적정 수익의 확보를 어렵게 하여 지속적인 보급확대를 어렵게 할 수 있으며, 일정 규모의 수요를 예상하고 구축하여 온 공급설비의 가동 효율을 낮추어 채산성을 떨어뜨리게 된다.

앞으로도 천연가스를 중심으로 한 도시가스의 보급은 크게 늘어날 필요가 있다.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라 깨끗하고 편리한 천연가스에 대한 선호는 계속 증대될 것이며, 국내외의 환경규제 압력으로 대기 환경오염 발생이 적은 천연가스 중심의 도시가스 소비 확대는 국가적으로도 장려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현재 선진국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협상이 우리나라에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되면, 전력생산 등 에너지 다소비 업종에서 에너지 사용 패턴을 고효율, 저공해 중심으로 바꾸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장기간에 걸치는 공급권역의 확대와 기반시설의 확충은 꾸준히 지속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천연가스의 적

정 공급이 가능하도록 침체된 수요를 진작시키고 공급설비의 효율을 높이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를 위한 천연가스 도소매 업계의 사업전략과 정부의 대응은 현시점에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인다.

첫째로 천연가스 판매자의 소비자 밀착형 마케팅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산업용 등 대량 수용가에 대한 적극적인 판매전략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대량 수용가의 에너지 사용 조건은 가정용과 같이 소규모 수용가의 사용조건처럼 표준화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에너지의 사용 목적이 사업장마다 다를 수 있으며, 계절별, 시간별 연료의 요구량도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수용가별로 에너지 및 천연가스의 수요 요구 수준을 점검하고 이에 부응하는 공급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대량 수용가에 대한 요금결정 체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현재 천연가스는 용도별로 단일 요금 체제를 가지고 있다. 대량 수용가의 경우 수용가별로 에너지의 요구수준과 패턴이 다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금수준을 이에 맞추어 줄 수 있는 체제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수용가의 요구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요금체제를 적용할 여지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물

론 대량 수용가에 대한 요금의 결정이 소규모 수용가나 가정용 등 여타 용도의 수용가에 영향을 주지 않는 원칙은 지켜져야 할 것이다.

대량 수용가에 대한 소비자 밀착형 마케팅을 위해서는 천연가스 도매공급자와 소매판매자의 공동 협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한국가스공사는 천연가스 원료의 도입과 인수/저장 및 생산, 도매판매를 담당하고 있고 지역별로 도시가스사들이 발전용을 제외한 천연가스를 소매 판매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산업의 특성상 도매부문은 한국가스공사가 소매부문은 지역별 도시가스사가 독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천연가스의 요금은 공공요금의 성격을 띠고 있어서 정부의 규제 대상이다. 가스 공급의 전 과정에 시장의 가격기능이 제한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소매판매자가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면서 취득한 소비자 선호에 관한 정보를 도매 공급자에게 전달하고, 도매 공급자의 공급여력에 관한 정보를 소매 판매자를 통해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하여, 시장의 가격기능을 보완하는 노력도 도소매 판매자간의 협력으로 강화될 필요가 있다.

도소매 판매자간 협력 방안의 하나로 대량 수용가에 대한 공동 판매계약제의 시행이 우

선 생각해 볼 수 있는 분야이다. 영국이나 일본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대량 수용가에 대한 계약제 요금제도를 실시하되 소비, 공급에 관한 계약에 소비자, 소매 판매자, 도매공급자가 참여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대량 수용가에 대한 계약제 요금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공급조건을 보장함은 물론 천연가스의 전체적인 수요관리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계약을 유도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천연가스 분야에 대한 규제를 담당하고 있는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정부는 현재 정부 산하 공기업의 민영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의 공기업에 대한 민영화 작업은 정부의 부채를 줄이고 부족한 외화의 확보 등에도 목적이 있지만, 공공부문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줄이고 시장기능을 강화 시키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부의 에너지 공기업 민영화 작업에는 에너지 공급의 시장기능 활성화 방안도 병행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은 도소매 판매업자가 천연가스의 공급조건이나 요금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을 확대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현재의 직접적인 요금 규제 방식

에서 벗어나, 소비자에게 다가가는 판매정책을 도소매 공급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하고, 그 결과의 공정성을 정부가 감독하는 체제로 발전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발전용 천연가스의 소비를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의 주도로 마련할 필요도 있다. 현재 천연가스 소비의 감소는 발전용 천연가스 소비감소가 주도하고 있고, 그 감소 폭이 대단히 커서 천연가스 수급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문제는 일차적으로 가스의 공급과 전력의 생산을 담당하는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 두 에너지 기업의 문제이다. 그러나 문제의 성격이 국가 전체의 천연가스 수급안정 및 발전설비의 운용에 직접 관련되어 있고, 천연가스와 전력의 수급불안은 국가 에너지 공급체계의 불안과도 무관하지 않다. 따라서 국가 에너지 수급 안정이라는 관점에서 정부가 나서 적정 수준의 천연가스가 발전용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IMF 긴급금융을 지원 받기 시작한 이후 우리 경제가 급속히 냉각되고 있고, 이 점은 천연가스를 비롯한 에너지 산업에도 마찬가지로이다. 그러나 에

너지 산업은 대규모의 장치 산업이며 수급의 조정이 장시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특성을 갖는다. 또한 천연가스의 산업은 아직도 공급권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고, 산업용 등에서는 천연가스로의 대체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 있다.

천연가스 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적정 수준의 수요가 확보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따라서 천연가스의 수급을 담당하는 도 소매 공급자는 공동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소비자를 계속 확보해나가고, 이를 규제, 감독하는 정부도 업계가 소비자 선호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